



지난 10일 법주사 능인교육관에서 봉행된 '제5교구 민족전통문화 수호 및 자성과 쇄신 결의대회'에 참석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자성과 쇄신의 5대 결사' 동참을 결의하는 모습.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제22교구본사 대흥사가 지난 10일 호남지역 6대 본사 가운데 처음으로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를 봉행하고 민족문화 수호와 5대결사 동참 의지를 천명했다.

“불교본연 모습 확립해 가겠다”

자성과 쇄신을 위한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

제5교구 법주사 본·말사

“우리는 종교간, 계층간, 이념간의 차별과 불평등을 단호히 거부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평화, 공존의 길을 끝까지 걸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불교 본연의 모습을 확립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성찰과 정진으로 수행의 길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제5교구 민족전통문화 수호 및 자성과 쇄신 결의대회에 참석한 1000여 사부대중은 한 목소리로 자성과 쇄신으로 불교를 만들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민족전통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노현스님)는 지난 10일 경내 능인교육관 앞마당에서 '제5교구 민족전통문화 수호 및 자성과 쇄신 결의대회'를 봉행하고 5대 결사 동참, 정부의 편협한 문화재 인식 전환 등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월서스님, 월성스님, 월탄스님, 설조스님, 천룡스님, 함주스님, 월은스님, 삼덕스님, 중앙종회의원 현조스님, 정도스님, 총지선원장 덕암스님, 민족문화수호위 부위원장 정념스님, 법주사 승가대학장 향산스님, 안병옥 충북포교사단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격려사에서 “변화를 통한 한국불교의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민족의 역사와 숨결을 갈

이 해 온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후 170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며 “외형으로만 보면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 조직이지만 외형에 비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작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결사를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는 길”이라며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사부대중 모두가 정진하고 발원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법주사 주지 노현스님은 대회사로 통해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분연히 일어나 민족전통 문화의 지킴이로서 우리의 민족전통 문화를 보호하고 보존해 불법의 전당을 지켜 후손에 남겨야 할 사명감을 깊이 다짐하자”고 강조했다.

대행사 주지 정윤스님은 사부대중을 대표해 “200만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정정수행 기풍으로 돌아갈 것이며 민족문화를 지켜 이 땅의 정신과 혼을 지키는 문화 지킴이가 되겠다”고 부처님 전에 발원했다.

이어 사부대중은 민족문화를 외면하고 불교계를 폄하하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제5교구 사부대중은 민족전통문화를 수호하고 한국불교의 자존을 회복하여 한국 불교 중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자성과 쇄신 결사'에 일심으로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결의대회에 앞서 템플스테이 교육관인 능인교육관 개관식이 열렸다. 현대 사회인들의 정서 함양과 마음 수련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을 연 능인교육관은 지하1층, 지상1층에 연면적 1364.06㎡(413.5평) 규모의 건물로 대강의실과 설명전, 식당, 누마루 등으로 구성됐으며, 300여 명이 수용할 수 있다. 향후 법주사는 자연생태 체험을 비롯해 속리산 자연보호, 계곡탐사, 단청 불화그리기, 천연염색, 한지공예, 참선, 3000배 정진 등 다채로운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주사=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10일, 사부대중 1000여명 운집해 편협한 정부의 문화재인식 질타하고 종단의 5대 결사에 적극 동참 다짐

“소중한 문화유산 지켜나가자”

자성과 쇄신을 위한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

제22교구 대흥사 본·말사

조계종의 민족문화수호 활동 및 자성과 쇄신의 5대 결사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22교구본사 대흥사가 호남지역 6대 본사 가운데 처음으로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를 봉행하고 민족문화 수호의지를 천명했다.

제22교구본사 대흥사(주지 범각스님)는 지난 10일 경내 보현전에서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22교구 본·말사 결의대회'를 봉행하고 민족전통문화 수호와 5대 결사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흥사 주지 범각스님을 비롯해 영암 도갑사 월우스님,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 대흥사 총무국장 도정스님, 김동섭 대흥사 신도회장 등 제22교구 본·말사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이 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는 명종 5회 타종에 이어 개회선언으로 막이 올랐으며, 민족문화수호 동영상 상영, 격려사, 경과보고, 결의문 낭독 및 구호 선창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행사 주지 범각스님은 정부의 편협한 문화재 인식과 종교편향에 대해 규탄했다. 범각스님은 인사말에서 “민족문화에 대한 현 정부의 편협한 시각과 종교 편향적 정책으로 인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현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는 문화유산 인식을 계도하고 민족문화 수호를 위해 결의대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범각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을 대신한 대독사에서 “최근 개

신교인들의 사찰 팽창이 동영상이 유포되고 목사와 장로 등 개신교 신자들이 조계사에 난입해 불교를 비방하는 사건 등 우리 사회의 종교편향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민족문화를 수호하고 종교편향 방지, 5대 결사를 다짐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범각스님은 “우리의 자성과 쇄신 결사를 5대 결사 내용별로 사찰의 행동지침과 불자의 행동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1불자 1수행 생활화하기 △일주일에 이를 이상 육식 금지하기 △1인 또는 1사찰 1복지시설 정기 후원하기 △복날동포 돕기 모금함 설치하기 등의 자성과 쇄신의 5대 결사를 위한 불자들의 실천지침을 발표했다.

신도들 역시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해 성토했으며 5대 결사 동참과 신뢰받는 불교를 만들어 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사부대중은 결의문에서 “현 정부는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해야 할 민족전통문화를 일부 특정종교단체의 주장에 따라 폐기하는가 하면 종교적 특혜인양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며 “민족문화를 외면하고 종교편향을 자행하는

10일, 사부대중 500여명 동참해 호남지역 처음으로 결의대회 거행 MB정부 종교편향 문화유산인식 성토

현 정부는 각성하라”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 불교계는 국민과 함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민족전통문화 수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현재의 위기를 불교계 도약의 밑거름으로 삼아 변화와 쇄신하는 모습으로 국민들 곁에 다가 서기 위해 종교 화합의 원칙과 서원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법회는 해남 미황사 금강스님의 구호 선창에 맞춰 사부대중이 함께 민족문화수호와 5대 결사 수호를 다짐하는 구호 제창과 사후서원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한편 조계총림 송광사는 오는 4월7일 민족문화수호위원회를 결성하고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사=진재훈 기자 36life@bulgyo.com

‘불자대상’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온 불자를 격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불기2555(2011)년도 ‘불자대상’ 시행을 공고합니다.

■ ‘불자대상’의 대상

1. 불법홍포에 그 공로가 큰 불자
 2. 한국불교의 위상 제고에 그 공로가 큰 불자
 3. 불자의 자긍심 고취에 그 공로가 큰 불자
 4. 종단의 발전과 홍보에 그 공로가 큰 불자
 5.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그 공로가 큰 불자
- ※위 불자에는 외국인과 고인(故人) 및 단체를 포함함

■ ‘불자대상’의 추천자격 및 방법

- 추천자격
 1.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
 2. 대한불교조계종 등록 사찰 주지스님(말사의 경우 교구본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

3. 대한불교조계종 등록 각급 포교단체 및 신도단체(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위 1 내지 3 이외의 자 또는 단체는 총무원 총무부장의 동의를 받을 경우 추천할 수 있음

• 추천기간 : 불기2555(2011)년 3월 14일(월) ~ 4월 8일(금)

• 제출서류 : 추천서류 및 공적사항 입증 서류(자료)

※ 추천서 양식은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및 문의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 02-2011-1724)

■ ‘불자대상’ 시상 일시 및 내역

- 일시 및 장소 : 불기2555(2011)년 5월 10일(화) 오전 10시 조계사 봉축 법요식장
- 시상 내역 : 상패 및 부상

불기2555(2011)년 3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